

구수한 춤사위에 마음도 푸짐



◇7일 대구 희망의집에서 노인들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있는 동화사 부도암 신도들.

바라밀현장 대구불교사회복지회 '희망의 집'

7일 오전 9시, 대구시 남구 이천동에 소재한 대구불교사회복지회

요일은 희망의집 노인 무료급식이 있는 날, 오후 12시부터 시작되는

(대표 지도스님) 배식시간이 무려 3시간이나 남았지만 어느새 모여든 노인들로 급식소는 이미 가득차 버렸다. 혼자 집을 지키던 노인들이 말벗을 찾아 일찌감치 급식소로 나온 것이었다. 배식을 위해 동화사 부도암에서 온 40여 자원봉사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장도 보고 밑반찬을 만드

는 등 점심공양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간혹 할머니들은 부식 재료 다 듣는 것을 거들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정담을 나누기도 하지만 노인들이 미리 급식소를 찾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화요일마다 열리는 민요봉사를 기다리는 것.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은 김팔선(42, 대구 만촌동), 김순기(52, 대구 수성동) 보살의 민요 노래 가락과 신명나게 두드려대는 장구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희망의 집은 단순한 무료급식소가 아닌 노인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한참 신명난 어르신들은 박수

부인 노인들이 대부분이라 밥을 넉넉히 푸게 되는 것이다. 희망의집 박선규(69, 흥련화) 소장은 "이곳에 오는 분들 대부분이 외로운 어르신들입니다. 여기 오시는 노인들이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고 마음이라도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두들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총 20여 봉사단체의 500여 회원들이 서로 돌아가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희망의 집은 지난 98년 9월 대구시 남구 이천동 동사무소를 개조해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매주 화, 금요일

단순 급식소 아닌 문화공간 활용

매주 1천여 노인·노숙자에 점심

를 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명실명실 춤도 춘다.

이렇듯 신명과 함께 따뜻한 기운이 묻어 나오는 무료급식소 안의 풍경은 구수한 된장국 내만둣이나 정겹다.

오늘의 메뉴는 흰쌀밥에 어묵, 고등어조림, 된장국, 김치 등 식탁이 제법 푸짐하다. 지역에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많아 이곳에서 먹는 점심 한 끼가 그녀의 식사 전

주2회 2000여 노인들에 경료급식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도시락 배달도 일주일 내내 해준다. 특히 매주 토요일은 대구 달성공원으로 나가 야외에서 1천여 노인과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한다. 전국적인 행사가 몰아닥친 지난 4일에도 '노인의 전화' 소속 봉사자 40여 명이 급식봉사에 나서 추위에 떠는 노숙자들과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했다.

지금까지 희망의집에서 4년이상 자원봉사를 해 '봉사보살'로 통하는 정금조(57, 심진행) 보살은 "한 달에 한 번 빠짐없이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혹시 사정이 생겨 빠지게 되면 공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 꼭 나오게 된다"면서 "이제는 희망의집 봉사활동이 불교공부 및 봉사활동에 동참해 이타행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대구=박원규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텐진 팔모 스님 (F)

(티베트 동구 가찰 링 원장)

남방권 비구니 스님들 위해 헌신



◇달라이 라마와 함께 한 텐진 팔모 스님(달라이 라마 오른쪽)과 제자들.

석굴에서 정진하던 어느해 겨울, 눈보라가 7일간 내린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캄그라지역의 여러 마을이 눈사태로 파괴되거나 고립되었고, 팔모 스님이 수행하던 석굴에도 수십 톤의 눈더미가 덮였다. 굴안을 덮혀주던 난로는 굴벽이 부서져 불을 피울 수 없었으며, 질척같은 어둠과 추위 속에서 점점 공기가 희박해져갔다.

그러나 팔모 스님은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스승 캄트를 린포체께 기

마음, 인내심, 자비심 같은 것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들숨과 날숨처럼 이 두 가지 생활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팔모 스님은 수술에 임한 외과의사처럼 한 곳에 집중하는 동시에 허공처럼 넓고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여유있는 마음의 큰 틈속에서 매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 알아채는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좌선과 생활이 하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불교란 우리 마음과 삶을 바꾸려는 것이기에, 수행은 삶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가르침이다.

1980년 입적한 스승 캄트를 린포체의 유언에 따라, 92년 주석하던 타시중 사원에서 나와 동구 가찰 링 비구니 사원을 건립한 팔모 스님은 여성불자들을 위한 국제여성수행센터 설립을 위해

들숨 날숨처럼 생활 조화 이루어야

매순간 알아채는 깨어있는 마음 필요

도를 올렸다. "중음(中陰; 죽음이후 새로 태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저를 보호하고 인도해주시시오." 이때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굴 입구의 눈을 뚫고 밖으로 나가라"

팔모 스님은 깜깜한 굴문 앞을 가로막은 빙벽을 깨기 시작했다. 석굴 안에는 곧 눈이 가득했다. 얼마나 그렇게 빙벽을 깨나갔을까. 약속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며 조금씩 밝아졌다. 드디어 극적으로 바깥 세상을 보게 된 스님은 깜짝 놀랐다. 석굴도 나무도 사라진 것이다. 오직 천지가 하얀 별판이었다. 드디어 기나 긴 각고의 투쟁 정진이 '깨달음(enlightenment)'이라는 열매를 가져다 준 순간이었다.

불자들은 팔모 스님에게, 용맹정진하던 시절과 동구 가찰 링 사원을 짓고 비구니 양성을 위해 순회 모금강연을 하는 요즘을 비교할 때 인제가 좋은지를 질문하곤 한다. 이에 팔모 스님은 "수행자는 홀로 정진할 때 잡다한 일에 마음을 빼앗길 겨를이 없어 발전이 빠릅니다. 반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혼자 있을 때는 기르듯 힘든 덕성을 배울 수 있어요. 보시하는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티베트 및 남방불교권의 비구니 수행을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전세계로 전법과 모금활동을 다니고 있다.

김재경 기자



◇텐진 팔모 스님



무료급식 진두지휘 최종속 보살 "봉사는 결국 나 자신의 공부"

"남을 위한 봉사는 결국 나 자신의 공부거립니다." 울음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4일에도 변함없이 달성공원에서 노인무료급식봉사활동을 벌인 대구불교사회복지회 소속 노

인의전화 소장 최종속 보살(65, 법보화)은 지난 6년여 동안 한결같이 매달 첫째 토요일은 달성공원에서 노인무료급식 봉사를 진두지휘해 오고 있다. 무료급식 자원봉사 외에도 96년 8월부터 노인의전화 소

장 직책을 맡고 노인상담분야 봉사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 최 보살은 "가끔 봉사활동이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무료급식 봉사와 노인전화상담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좀더 많은 불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해 이타행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대구=박원규 기자

가끔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행법을 묻는 경우가 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렇다. 사십쯤 되어 보이는 신사 한 분이 수행법을 알려달라고 방문하였다. 우선 부처님께 절이라도 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자고 했더니 자신은 아직 종교를 갖고 싶지는 않으니 절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수행법만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귀하게 찾아온 사람이기에 언짢은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육신 채워주는 것이 보시만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 그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처님 당시 아주 가난하여 웃이라고는 한 별박

에 없는 두 부부의 이야기였다. 입을 웃이 한 별박에 앉아서 평소에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다 외출할 때는 서로 번갈아가며 입이 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빈곤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심은 대단하였다. 이들의

재산과도 같은 한 옷 한 벌을 부처님께 바치고 그들의 소원을 말씀드리기로 하였다. 남편은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부처님께 찾아가 웃을 바쳤다. 그들의 신심을 접하신 부처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초청에 응해주셨다. 남

의침을 듣게 되었다. 왕은 사정을 듣고 너무나 정한 일이라고 칭찬하며 그에게 얼마간의 재산을 내려주었다. 이를 보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까운 것 하나마저도 진리를 향해 던져버린 그 사람이야

신사는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속스럽게 절을 하고는 이전 절에 다녀야겠다고 말하면서 돌아갔다. 요즘 들어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절이나 수행처를 찾아가고 있다.

마음공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일과 같다면, 부처님께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바치는 것은 농부가 밭에 거름을 주고 물을 뿌리는 일과도 같다. 마음공부에만 치중한 나머지 부처님을 향한 신심은 등지고 있지 않은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寂然

마음비추기

마음 바쳐야 공덕 이룰수 있어

소원은 남들처럼 자신들도 부처님께 무언가 보시를 올리고 자기 집에 부처님을 초청하여 법문을 듣는 것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끝에 너무나 아깝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전

편은 너무나 감격하여 수도원을 뛰어나오며 "야, 나는 이겼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그때마다 파사외왕이 부처님을 뵈러 수도원을 방문하다 그의

말로 진정한 승리자이며 그는 그 신심으로 인해 곧바로 그 공덕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신심의 중요성을 살피었다. 신심을 갖지 못하고 방문했던 그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3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인을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2기생을 모집함
-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호(동국대학교수) · 김상현(동국대학교수) · 김성영(승가대학교수) · 묘주스님(동국대학교수) · 차차석(동국대학교수) · 장희욱(동국대학교수) · 문윤식(동국대학교수) · 권단준(동국대학교수) · 박 중(동국대학교수) · 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 · 계환스님(동국대학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압도스님(전포교원장) · 권기종(동국대학교수) · 최종석(동국대학교수) · 인환스님(동국대학교수) · 유영수(문화재단연구원) · 김호기(동국대학교수) · 종각스님(승가대학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최봉수(동국대학교수) · 주명철(동국대학교수) · 오국근(동국대학교수)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 (200명) (정규반·주간반·통신반) (50명) (50명) (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유리충과 (30명) · 한문학과 (50명)	· 불교를 적극 실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합판사진 3매	2002년 12월 15일 ~ 2003년 2월 3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미술반)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유리충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한문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3년 2월 8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한문학과·불교미술학과·유리충학과 : 2003년 3월 5일, 6일
-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리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성직자 양성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석경사 삼학불교대학 신입생모집

附設 전통내전강독연구원 · 불교전통의식교육원

강의안내

I. 승려반	II. 법사반	III. 입학대상
- 1학년 1년과정 1학기 3월 ~ 7월 (5개월)	- 1학년 1년과정 1학기 3월 ~ 7월 (5개월)	① 승려반 00명 ② 법사반 00명
■ 강의과목 ● 내 전 : 조발심 자경문, 사미율의 ● 의 식 : 도량경, 중성, 각단예불, 심보통정 및 각단 불공의식	■ 강의과목 ● 내 전 : 계조심약인문, 발심수행장, 자경문 ● 의 식 : 도량경, 중성, 각단예불, 축원문, 심보통정	■ 교육기간 : 2년과정 ■ 개강일시 : 2003년 3월 3일 ■ 강의일시 : ● 승려반 - 일자 : 매주 월, 수, 금 - 시간 : 오후 6시 ~ 9시 (3시간) ● 법사반 - 일자 : 매주 화, 목, 토 - 시간 : 오후 6시 ~ 9시 (3시간)
2학기 9월 ~ 1월 (5개월)	2학기 9월 ~ 1월 (5개월)	■ 재가불자 및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 강좌를 실시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것은 교무처에 문의바람
■ 강의과목 ● 내 전 : 사미율의, 지문 ● 의 식 : 상용영반 및 각종시식	■ 강의과목 ● 내 전 : 불교역개론 및 원시불교 사상 ● 의 식 : 관음불공, 신장불공, 지장불공 및 각단불공	
- 2학년 1년과정 1학기 3월 ~ 7월 (5개월)	- 2학년 1년과정 1학기 3월 ~ 7월 (5개월)	
■ 강의과목 ● 내 전 : 지문, 서장 ● 의 식 : 시련, 대령, 관음, 신중작법 및 상단의식	■ 강의과목 ● 내 전 : 석문의법 의식문예설 ● 의 식 : 상용영반 관음시식, 각종시식 및 시다림의식	
2학기 9월 ~ 1월 (5개월)	2학기 9월 ~ 1월 (5개월)	
■ 강의과목 ● 내 전 : 서장 선의(도서) · 절요 ● 의 식 : 지장경, 화상, 관음시식 및 전도계 의식중합 연습	■ 강의과목 ● 내 전 : 금강경 및 대승불교사상 ● 의 식 : 전도계 의식	

석경사 삼학불교대학 개교, 입학 안내
2003년 3월 3일(월) 2월 11일(월) 오후 3시(우) 개교
* 석경사 행사모집 중 *

경전 및 의식에 나오는 안문을 안재간자 풀이하여 강의함으로써 안문을 모르시는 분도 수강이시는데 불편없으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석경사 032)463-1630 석경사 주지 해월 합장
교무처 032)462-7322 삼학불교대학 학장 도종 합장